

## 제10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최우수 에세이

고려대학교 이두찬

"Architecture is frozen music."

-Johann Wolfgang Von Goethe

초등학교 때였을까.. 학교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기계 엔지니어 이셨고, 지금도 현업에서 엔지니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그 때는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듣기에는 그저 자동차 수리공 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엔지니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시절에는 엔지니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설었고,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나의 이해도 부족 했던 것 같았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우리나라 엔지니어의 기술적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도달했다.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의 시공사도 우리나라 회사이고, 세계 각지에서 가장 인정받는다고 평가되는 기술자들도 우리나라 기술자 선배님들이다.

‘급격한 발전’ 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빨랐다. 그 덕분에 불균형적 발전이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얻은 것이 정말 많았다. 몇 십년만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고 있던 나라가 그런 나라들에게 원조를 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의 엔지니어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한국이라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당연히 발전하게 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리더쉽을 발휘하는 도덕적인 나라가 되는가 아니면 과거의 또는 현재의 도덕적인 부패를 물어놓고 앞으로 가는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덕목은 도덕심 이라고 한다. 아무리 높게 올라간 사람이라고 부패한 도덕성에 의해 바닥으로 쳐박히는 일이 허다한데, 인간보다 큰 단위인 나라가 비도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세계의 선두자리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한 번 쬐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다. 내게는 지금이 그런 순간인 것 같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들으면서, 도덕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리더쉽이나 건설산업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았던 ‘돈’ 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정말 내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엔지니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아무리 건설업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나쁘고 일도 그리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우리 직업을 정말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얼마나 신성한 일인가? 지금 서울의 날씨가 영하 19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때에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건설업. 너무나 신성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위와 같이 말했다.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며 우리는 그 얼어붙은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이다. 다만 우리는 일반 음악가와 달리 철근과 콘크리트라는 음표를 쓰며, 건축, 건축공학이라는 리듬을 사용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인가!

---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우리 건설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건설업의 미래는 정말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